

이재명 “광주공항 문제 직접관리…깔끔하게 정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를 조정해 (공항을) 신속히 옮기고 돈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반드시 활로를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으로 통합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무안군이 반대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무안군의 입장이 이해하지만, 군용기 소음 피해를 줄이고 동네 주민이 동의할 조건을 만들면 되지 않나”라며 “지역

광주 유세서 “반드시 활로”

“피해주민에 충분히 보상”

인공지능 도시 지원 강조

양곡법 개정 재추진도 약속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할 만큼 합리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나”라고 자신했다.

이어 “어떤 정책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 그 편익의 일부를 떼 손해를 채워주면 된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에게 특별히 보상해주는 것이 정의롭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가 광

주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지원해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GPU(생성형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 칩을 5만개를 사서 여기(광주)에 최대로 배치하겠다고 했더니 2,000장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수용이 불가능하면 가능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앞서 열린 나주 유세에서는 “(당선되면) 집권 기간이 5년에 불과한데 남의 뒤를 쫓 시간이 어디 있나”라며 “우리는 그렇게 유지하고 졸렬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나라의 모든 역량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기득권자의 영예를 채우고, 특정 정치 집단과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 세력을 멸절시키는 데 쓰면 안 되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전남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쌀값 20만원을 유지한다고 약속했는데 안 지켰다”며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쌀을 사주도록 입법하자고 한 것이다. 동시에 과잉 생산이 되면 문제가 되니 대체작물 지원법을 만들었더니 이거

도 대통령이 다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과 전기요금 차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한 뒤 수도권에서 쓰는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 요금이 같으면 이상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사회로 가야 해서 송전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앞으로는 생산지 전기와 소비자 전기이 원격일 때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 유세에는 19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용남 전 의원이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는 김대중의 못다한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믿는다”며 지지를 선언했고, 이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보고 바란다”고 화답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저…작년 8.8%↓

6차 계절관리제 추진 성과

전남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text{㎍}/\text{㎥}$ 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농도($15.9\text{㎍}/\text{㎥}$)보다 8.8% 줄었다.

전남도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4개 부문 18개 과제별 추진 실적을 매주 점검하며 관리했다.

우선 미세먼지 다배출 차량 3,45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공회전을 집중단속했고, 공사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37곳을 방문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점검했다. 또 드론,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등 첨단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통해 대기배출 사업장 밀집지를 상시단속해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 등 449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여수 석탄화력발전소 2기의 최대출력을 80%로 제한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도 시행했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과 영농 폐기물 수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43만4,000t의 영농잔재물을 수거·처리했다.

이밖에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50\text{㎍}/\text{㎥}$ 초과) 발생 시 경보발령 등 신속한 조치도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정근산 기자



“오월정신, 투표로 계승하세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지난 17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서구민들과 함께 광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금남로4가역 교차로까지 민주평화대행진을 하며 ‘오월정신, 투표로 계승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산업·민주화 역사 광주 건축물 71% 민간소유

광주연 “유지·관리비 등 지원”

전일빌딩245 등 산업·민주화 역사를 지닌 광주 건축 자산의 보존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유지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광주연구원이 발간한 광주정책포커스-건축자산 현황 및 보전·활용 방안에 따르면 광주지역에는 1960년~1980년대 지어져 산업화·민주화 과정이 반영된 건축물이 534건 확인됐으며 이중 건축물이 435건(81.27%), 기반시설 등 99건이다. 전체 건축자산 중 380건(71.16%)이 민간 소유이며 지역의 정체성·추억·생활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자산은 246건(40.07%)으로 집계됐다.

조성 연대 기준으로 1960~1980년대에 형성된 자산이 전체의 50.56%를 차지해 광주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근현대 건축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 127건, 광산구 117건, 남구 75건, 서구 57건 순이다.

광주시는 근현대 건축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에는 전일빌딩245·전남대 학군단 본부·서강사·동구인문학당 등 4개소를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했다.

광주연구원은 지역의 역사적 기억과 공동체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건축자산은 도시재생·관광자원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의 미래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보존 중심의 문화유산과 차별화 정책 마련 △건축자산 진흥계획과 관련 법적계획 및 조례 간 연계성 확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구체화 △공적이익양제 도입을 통한 도심활성화 및 지역 정체성 보전 △건축자산 인식 제고 및 시민참여형 보전 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건축자산이 가치 있게 활용되지 못한 채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자산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지관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용현 기자

“평화·통일 체험 DMZ 가자”…광주평화열차 운행

내달 13일 시민 370명 방문

광주시는 오는 6월13일 시민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광주평화열차’를 운행한다.

이번 평화열차는 1980년 5월 광주정신을 되새기고,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광주평화열차는 광주 효천역에서 임진강역까지 운행된다.

열차가 달리는 동안 1980년 5월을 주제로 한 음악다방과 추억의 간식 쿼츠, 연극 공연 등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가 진행된다.

임진강역 도착 후에는 파주시 DMZ 일원에서 안보현장 견학이 이어져 분단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열차는 총 37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

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11만원이다.

광주시는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과 10·4남북정상선언 18주년을 기념해 6월에 이어 10월에도 광주평화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박용수 시민주인권평화국장장은 “광주평화열차는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확대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광주시가 평화와 통일의 가치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28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18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자(기업) 신청을 19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2,400만원의 창업기술 사업화비를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1대 1 멘토링과 경영·회계·법률·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이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 기업인(2020년 1월 1일 이후) 중 18~45세 청년이다. 선발 규모는 총 150명(기업)으로 우주항공·바이오·인공지능·데이터·에너지 등 지역특화기술 100명, 농수산기술 30명, 문화·관광 20명 등 미래 첨단분야 기술창업 중심으로 선발한다.

정근산 기자

‘임계 육아’ 캠페인

육아는 한마음 아이는 큰희망

보건복지부 | 전라남도 |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 법원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 신입·경력사원 | 영입팀 / 채권추심팀 | 인사팀 | 법무팀 | 회계팀 | 감사팀

호남지사 062-417-4710 / 010-2603-1050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그린궁 **宮** |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자아인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NAVER | 드림꽃도매 | 판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단 |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